

# 치매 노인 돌봄에서 가족 내 돌봄의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친친(親親)의 확장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Transition from Family-Based Care to Social Care for Dementia Patients: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Qinqin(親親)

정두호\*

**국문요약** 이 논문은 치매 노인 돌봄 노동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 철학의 관계 사상과 공감 개념을 통해 사적 돌봄에서 공적·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다. 현재 치매 돌봄은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며, 돌봄 노동의 과도한 부담이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 주돌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노동이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유가 철학의 친친(親親)과 별애(別愛) 개념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주역』(周易)의 만물일체(萬物一體)적 사유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적 돌봄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재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공감력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여 치매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유가 철학이 치매 돌봄 노동의 공적 전환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돌봄 노동의 공공화가 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임을 밝힌다. 또한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주돌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노동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제안한다.

**핵심어** 치매 돌봄 노동, 사회적 책임, 공감과 연대, 가족 돌봄 부담, 관계적 사유

- 차례**
- 서론
  - 현재 치매 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 유가 철학의 관계적 사유와 돌봄
  -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 결론

## 1. 서론

한국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치매 노인 인구의 급증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치매 노인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sup>1</sup> 이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치매 돌봄 문제를 중요한 복지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치매 돌봄 체계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돌봄 노동의 부담이 여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강사

<sup>1</sup> 국립중앙의료원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3.aspx](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3.aspx)

성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어 있어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집중은 돌봄 제공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2016년 김재업 외의 연구에 따르면, 주돌봄자의 21.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돌봄 노동의 부담감은 매우 크다. 특히 치매 노인의 증상 악화와 연령 증가에 따라 돌봄 노동자의 부담은 점차 가중된다.<sup>2</sup> 가족 내 주돌봄자들이 겪는 극단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일상적 피로를 넘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발생한 강동구 사건은 가족 내 돌봄이 불러온 비극적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가 사망하자, 이를 부양하던 60대 두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sup>3</sup>은 돌봄 노동의 위기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이 돌봄의 주된 책임을 질 때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한 치매 노인인 데이케어 센터에서 하루 9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집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함께 돌봄을 맡는다.<sup>4</sup> 이처럼 가족 돌봄자들은 외부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가운데 돌봄에만 매몰되어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돌봄 노동의 성별 불평등은 특히 심각하다.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맡겨지면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킨다. 둘째,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돌봄 노동은 가정 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가족 내 돌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돌봄을 전담할 가족 구성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이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사회적 책임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치매 노인 돌봄이 가족의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으로 인식될 때, 돌봄 노동의 질적 향상과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력과 연대 의식이 필수적이다. 이때 유가 철학은 돌봄 노동의 공적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유가 철학의 핵심 개념인 친친(親親)과 별애(別愛)는 가족 간의 관계와 책임을 중시하지만, 이러한 관계적 윤리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친친(親親)은 가족 중심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유가 철학에서는 만물일체(萬物一體)의 관점을 통해 개인의 관계가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주역』(周易)의 만물일체적 사유는 유가 철학의 관계적 사유를 가족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친친(親親)의 윤리를 통해 가족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책임을 사회적 관계로 확장하여 공적 돌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유가 철학의 관계적 사유와 공감 개념을 바탕으로, 치매 돌봄 노동을 가족 내의 사적 영역에서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주역』의 만물일체적 사고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주돌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김재업 외, 「치매노인의 증상정도가 부양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부양부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3), 한국노년학회, 2016, 897쪽.

3 「90대 치매 노모 숨지자 60대 두 딸도... 돌봄 비극」 [뉴스 투데이], 『세계일보』, 2024.04.07. <https://news.nate.com/view/20240407n15079>

4 「퇴근하고 밤 9시, 74살 치매부모 돌봄 시작...휴가제도 있지만」, 『한겨레』, 2024.04.22.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37198.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37198.html)

## 2. 현재 치매 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사회에서 치매 돌봄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돌봄자는 주로 여성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결부되어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맡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치매 돌봄은 단순한 일상적인 돌봄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포함한다.

2023년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약 93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38%를 차지하고 있다.<sup>5</sup> 이 중 다수의 치매 환자들이 여전히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 주돌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4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돌봄의 탈가족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돌봄은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sup>6</sup>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족 내 역할분업과 관련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존재한 결과로, 이러한 가치관이 많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부양자와 의사결정자로서의 남성과 가사와 돌봄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음’<sup>7</sup>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 중심의 돌봄은 주돌봄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김선주에 따르면 ‘부양부담 수준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에게 중년기는 기존의 역할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할 전이(Role Shift)가 되는 시기에 부양부담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부여됨에 따라 분노를 느끼기’<sup>8</sup>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치매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 주돌봄자는 심각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미륵과 김옥녀

의 연구에 따르면, 돌봄 부담감이 주돌봄자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낮추며, 사회적 지지가 이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sup>9</sup>

장두남과 유정옥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90%가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주돌봄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를 유발하고 있다.<sup>10</sup> 또한 이용주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돌봄의 부담은 주돌봄자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과 불안은 유의미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한편, 2023년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약 2,220만 원으로 추정된다.<sup>12</sup> 이는 돌봄이 단지 가족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동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 체계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용주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공식 가족 돌봄이 증가하면서 돌봄의 책임이 가족, 특히 노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주돌봄을 맡고 있으며, 그 중 63.5%가 여성이다.<sup>13</sup>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돌봄이 주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가족 구성원에게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결국 현재 치매 노인 돌봄은 여성적·사적 돌봄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돌봄자의 돌봄 부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

9 이미륵·김옥녀, 「치매노인 주돌봄자의 돌봄부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과세계』 6(2), 한국국회학회, 2024, 704쪽.

10 장두남·유정옥, 「재가방문 치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32(4),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23, 175쪽.

11 이용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매 노인환자 비공식 가족돌봄의 실태와 영향 요인」,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5(2),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2023, 62쪽.

12 중앙치매센터, 앞의 논문, 26쪽.

13 이용주, 앞의 글, 61쪽.

5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중앙치매센터, 2024, 15쪽.

6 노경혜, 「저출생고령화시대, 성평등환경을 논하다: 기획시리즈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3쪽.

7 위의 논문, 12쪽.

8 김선주,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1쪽.

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사적 돌봄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사회적 책임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유가 철학의 관계적 사유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3. 유가 철학의 관계적 사유와 돌봄

유가 철학에서 관계적 사유를 나타내는 개념은 친친(親親)과 별애(別愛), 그리고 『주역』의 만물일체적 사유가 있다. 먼저 친친(親親)은 가족 간의 친밀함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의무로 보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맹자』(孟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자(夷子)가 말하였다. “유가의 가르침에 ‘옛사람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나는 사랑에는 차등이 없으나 사랑을 베푸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서자(徐子)가 이 말을 맹자에게 전하자, 맹자가 말하였다. “이자는 사람들이 형의 아들을 친애하는 것이 그 옆집의 어린아이를 친애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가? 『서경(書經)』의 말은 비유를 취한 뜻이 따로 있다.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이 어린아이의 잘못이 아니듯이, 백성들이 무지하여 법을 범하는 것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하늘이 만물을 낼 적에 만물로 하여금 근본이 하나이게 하였는데, 이자는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보았으니,] 이는 근본이 둘인 것이기 때문이다.<sup>14</sup>

맹자는 형의 아들과 옆집의 어린아이,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이자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근본이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은 오직 내 가족에게 있으나 남의 부모 또한 나의 부모로 여긴다면 이것은 근본이 둘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나의 가족과 남의 가족은 엄연히 다르며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친친(親親)의 기본 원리이다.

다음으로 별애(別愛)는 구분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주(楊朱)는 ‘나를 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니, 이것은 군주를 없애는 것이다. 목적(墨翟)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니, 이것은 부모를 없애는 것이다. 부모가 없고 군주가 없는 것은 바로 금수(禽獸)이다.<sup>15</sup>

목자(墨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을 주장하여 이마를 갈아 발꿈치에 이르더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하였다.<sup>16</sup>

맹자는 별애(別愛)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목자의 겸애(兼愛)를 비판하며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맹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목자의 주장은 가족 윤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가 철학에서의 친친(親親)과 별애(別愛)는 가족 간의 사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으로 하여 혈연적 연대감에 기초한 가족을 강조하는 것이며, 결국 대동사회(大同社會) 등으로 확장된다.<sup>17</sup>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인(仁)이다. 인(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

14 『孟子』「滕文公上」, “徐子以告夷子, 夷子曰, 儒者之道, 古之人, 若保赤子, 此言, 何謂也. 之則以爲愛無差等, 施由親始. 徐子以告孟子. 孟子曰, 夫夷子信以爲人之親其兄之子, 爲若親其鄰之赤子乎. 彼有取爾也. 赤子匍匐將入井, 非赤子之罪也. 且天之生物也, 使之一本, 而夷子二本故也.”

15 『孟子』「滕文公下」, “楊氏, 爲我, 是無君也, 墨氏, 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16 『孟子』「盡心上」, “墨子, 兼愛, 摩頂放踵, 利天下, 爲之.”

17 김병환, 「유가의 친친윤리와 목가의 겸애윤리에 대한 다원주의적 독해」, 『범한철학』 54, 범한철학회, 2009, 42~43쪽.

는 것이기 때문에 혈연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역』의 만물일체적 사유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돌봄 노동이 단지 가족의 의무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재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가 철학에서 가족 간의 친친(親親)은 돌봄의 도덕적 근간을 형성하지만, 만물일체적 사유를 통해 이러한 도덕적 책임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만물일체적 사유는 만물이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주역』 「설괘전」(說卦傳)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상제(上帝)가 진(震)에서 나와 손(巽)에서 고르게 되고, 리(離)에서 서로 드러내며, 곤(坤)에서 성장을 이루고, 태(兌)에서 기뻐하며, 건(乾)에서 다투고, 감(坎)에서 수고하고, 간(艮)에서 이룬다. 만물이 진(震)에서 나오니, 진(震)은 동방(東方)이다. 손(巽)에서 고르게 된다고 함은 손(巽)은 남방(東南)이요, 고르다는 것은 만물이 깨끗하고 단정함을 말한다. 리(離)는 밝음이니, 만물이 모두 서로 드러내므로 남방(南方)의 괘이다. 성인이 남면(南面)하여 천하의 일을 처리함에 밝음을 향해 다스리는 것도 여기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곤(坤)은 땅이니, 만물이 모두 길러지므로 곤(坤)에서 성장을 이룬다고 말한 것이다. 태(兌)는 곧 가을로 만물이 기뻐하는 때이므로 태(兌)에서 기뻐한다고 말한 것이다. 건(乾)에서 다투다고 한 것은 건(乾)은 서북(西北)의 괘이므로 음양이 서로 마주쳐 응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 감(坎)은 물이니, 바로 북방(北方)의 괘요, 수고로움의 괘로, 만물이 모두 되돌아가게 되는 곳이므로 감(坎)에서 수고롭다고 말한 것이다. 간(艮)은 동북(東北)의 괘로, 만물이 마무리되고, 또한 시작되는 곳이므로 간(艮)에서 이룬다고 말한 것이다.<sup>18</sup>

이 구절은 생성소멸의 순환활동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시간 공간상의 변화와 사물의 변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우주 전체는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다.

이러한 논의는 돌봄 노동의 공공화와 연계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핵가족화 및 고령화는 돌봄 책임을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물일체적 사유는 돌봄의 도덕적 책임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4.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함의

치매 돌봄 노동의 공적 전환은 가족 내 돌봄 부담의 완화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이다. 돌봄 노동은 더 이상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개인적 책임으로 간주되어서는 지속 불가능하다. 돌봄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유가 철학의 친친(親親)과 별애(別愛) 개념을 확장하여, 가족 내 돌봄 윤리를 사회적 윤리로 전환함으로써 돌봄 노동이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할 도덕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돌봄 노동의 공공화는 돌봄 노동을 단순히 가족 내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과정이다. 돌봄 노동자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

乾, 勞乎坎, 成言乎艮.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也. 離也者, 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 坤也者, 地也, 萬物皆致養焉, 故曰致役乎坤. 兌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說言乎兌. 戰乎乾, 乾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坎者, 水也, 正北方之卦也, 勞卦也, 萬物之所歸也, 故曰勞乎坎. 艮, 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曰成言乎艮.”

18 『周易』 「說卦傳」,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

19 김학권, 『『주역』의 우주관』, 『공자학』 25, 한국공자학회, 2013, 130~132쪽.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유가 철학에서 제시된 인(仁)은 돌봄 노동을 존엄한 인간 활동으로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돌봄 노동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공감 문화를 전제로 한다. 유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만물일체적 사유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며, 이러한 인식은 공적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감과 연대는 공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로, 이는 돌봄이 단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돌봄제공자와 피돌봄자 간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연대와 공감을 위하여 돌봄제공자와 피돌봄자가 상호 간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의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측은지심의 감정은 우리 마음에 갖추어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 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sup>20</sup> 주희(朱熹)는 이 인(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지는 사람과 사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는다.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태어남은 각기 천지의 마음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특징을 말하자면 그것은 비록 모두 포괄하고 관통하여 갖추지 않음이 없지만, 한마디로 그것을 말하면 인(仁)일 뿐이다. 이를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개 천지의 마음에 그 덕(德)이 네 가지가 있으니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 한다. 원(元)은 통괄하지 않음이 없어서 그 운행은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순서가 되고, 봄의 낳는 기(氣)는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았으니 그 덕에도 네 가지가 있으니 인의예지(仁義禮智)라고 한다. 인(仁)은 그 포괄하지 않음이 없으며, 그것이 발동하면 사랑[愛], 공손함[恭], 마땅함[宜], 분별[別]의 감정이 되고, 측은지심(惻隱之心)이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천지의 마음을 논하는 경우에는 역(易)에서 건원(乾元)과 곤원(坤元)이라고 말하니, 사덕(四德)의 체용(體用)은 다 세지 않아도 충분하다. 인심(人心)의 신묘함을 논하는 경우에는 맹자에서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니, 사덕(四德)의 체용(體用)은 두루 거론하지 않아도 포괄된다. 대개 인(仁)이라는 도(道)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니, 사물에 나아가 존재한다.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 이 본체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감정이 이미 발하면 그 작용은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인(仁)을 체득하여 보존한다면 모든 선의 근원과 모든 행동의 근본이 이곳에 있지 않음이 없다.<sup>21</sup>

사람은 천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은 존재이다. 천지에 원형이정(元亨利貞)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있다. 즉, 천지와 사람은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仁)에 의한 도덕 감정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과 공감과 연대가 가능하다.<sup>22</sup> 이러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적 관계의 철학은 돌봄 노동이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가치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돌봄 공동체 모델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20 정두호, 「정명론(正名論)의 역설: 피해자다움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2,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24, 357쪽.

21 『朱熹集』 卷67 「雜著」 仁說, “天地以生物爲心者也, 而人物之生, 又各得夫天地之心, 以爲心者也. 故語心之德, 雖其揚攝貫通無所不備, 然一言以蔽之, 則曰仁而已矣. 講試詳之, 蓋天地之心, 其德有四曰, 元亨利貞, 而元無不統. 其運行焉, 則爲春夏秋冬之序, 而春生之氣無所不通, 故人之爲心, 其德亦有四曰, 仁義禮智, 而仁無不包. 其發用焉, 則爲愛恭宜別之情, 而惻隱之心, 無所不貫. 故論天地之心者, 則曰乾元坤元, 則四德之體用, 不待悉數而足. 論人心之妙者, 則曰仁人心也, 則四德之體用, 亦不待遍舉而該. 蓋仁之爲道, 乃天地生物之心, 卽物而在. 情之未發, 而此體已具, 情之既發, 而其用不窮. 誠能體而存之, 則衆善之源, 百行之本, 莫不在.”

22 정두호, 「정명론(正名論)의 역설: 피해자다움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2,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24, 358쪽.

들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의식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가 철학의 인(仁)을 바탕으로 한 돌봄 공동체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전체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전문교육의 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를 노력하는 등, 돌봄부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노인과 돌봄자를 위한 돌봄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sup>23</sup>

결국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이를 공공의 책임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이다. 유가 철학의 관계적 사유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며, 돌봄의 도덕적 책임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적 돌봄 시스템의 강화와 사회적 연대의 확산, 돌봄 공동체 모델의 발전을 통해 치매 돌봄 노동의 공공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5. 결론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치매 돌봄 노동이 주로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돌봄 전환의 가능성을 유가 철학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특히 유가 철학의 친친(親親)과 별애(別愛), 그리고 『주역』의 만물일체 사유를 중심으로 가족 중심의 돌봄 윤리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만물일체적 사유는 돌봄의 도

덕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돌봄 노동의 공공화 필요성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가 철학에서 제시하는 친친(親親)과 별애(別愛)의 관계는 돌봄의 책임이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친친(親親)은 가족 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윤리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만물일체적 사유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 중심 돌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공적 돌봄의 실현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돌봄 노동이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이다. 특히 돌봄 노동의 공공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공감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3 정가원, 「국가치매정책 내 돌봄의 주류화 필요성 및 정책과제」, 『KWDI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9~12쪽.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孟子』/『周易』/『朱熹集』

## 2. 단행본 및 논문

김병환, 「유가의 친친윤리와 목가의 겸애윤리에 대한 다원주의적 독해」, 『범한철학』 54, 범한철학회, 2009.

김선주,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석사학위논문, 2019.

김재엽 외, 「치매노인의 증상정도가 부양자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부양부담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3), 한국노년학회, 2016.

김학권, 「(주역)의 우주관」, 『공자학』 25, 한국공자학회, 2013.

노경혜, 「저출생고령화시대, 성평등환경을 논하다: 기획시리즈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이미론·김옥녀, 「치매노인 돌봄가족의 돌봄부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과세계』 6(2), 한국국회학회, 2024.

이용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매 노인환자 비공식 가족돌봄의 실태와 영향 요인」,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5(2),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2023.

장두남·유정옥, 「재가방문 치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32(4),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23.

정가원, 「국가치매정책 내 돌봄의 주류화 필요성 및 정책과제」, 『KWDI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정두호, 「정명론(正名論)의 역설: 피해자다움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4.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중앙치매센터, 2024.

## 3. 기타 자료

세계일보. <https://news.nate.com>

한겨레. <https://www.hani.co.kr>

국립중앙의료원. <https://www.nid.or.kr>

## Abstract

## Exploring the Transition from Family-Based Care to Social Care for Dementia Patients

: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Qīnqīn(親親)

Jung, Du-Ho |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how transition dementia care labor, which is currently concentrated within families, especially on women, could be transitioned into a public and social responsibility using Confucian relational philosophy and the concept of empathy. Dementia care is mostly handled within families, leading to excessive physical and emotional burdens on primary caregivers, particularly women. To resolve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private, family-based care to public, social care, where society collectively shares the responsibility.

The Confucian concepts of Qīnqīn(親親) and Bièài(別愛), which traditionally emphasize familial relationships, are examined through the cosmological ideas in the *I Ching* (周易), allowing for the expansion of these principles into a broader societal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expansion provides an ethical justification for public care and calls for the reorganization of care labor from a societal perspective. Additionally,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ocial empathy and solidarity is highlighted to support the transition to public care.

This article shows that Confucian relational philosophy can offer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ransitioning dementia care from private to public responsibility, demonstrating that care labor should be recognized as a collective societal duty.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public care can alleviate the burden on primary caregiv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care.

**Keywords** Dementia care labor, Social responsibility, Empathy and solidarity, Family caregiving burden, Relational thinking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